

한국드라마가 얼마나 일본열도를 달궜으면

한국드라마와 관련한 600개의 용어를 담은 사전이 일본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일본 출판사 세이분도 신고샤가 최근 발간한 '한국드라마 사전'으로, 한국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분석창으로도 읽힌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드라마 사전'은 사극에서 현대극까지 한국드라마와 관련한 600개의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삽화를 곁들인 사전은 한국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와 맞물려 그 요인을 들여다보게 하는 '키워드 모음집'이라 할 만하다.

사전은 그동안 한국드라마에 관한 책을 써온 다카야마 가즈카·일러스트레이터 산케 후모코 작가가 공동 저술했다. 1일 세이분도 신고샤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두 작가는 '모래시계', '동백꽃 필 무렵' 등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은 작품도 고루 소개하고 있다. '총무모 배우' '추노' '공주' '연쇄살인사건' 등 한국드라마가 다뤄온 주요 소재 등 다양한 목록을 담고 있다.

사전은 한국드라마는 물론 한국문화의 세대별 현지 팬들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다. 2003년 KBS 2TV 드라마



한국드라마 사전

N '사랑의 불시착'에 열광한 '4세대' 등이다. 그 사이에 2009년 장근석이 주연

일본서 '한국드라마 사전' 출간 '겨울연가'시'사랑의 불시착'까지 소재·배경 등 600개 단어 소개

'겨울연가' 및 주인공 '윤사마' 배용준을 비롯해 이영애가 주연한 MBC '대장금' 등 일본 한류 '1세대'부터 최근 손예진·현빈 주연 드라마 tvN '사랑의 불시착'에 열광한 '4세대' 등이다. 그 사이에 2009년 장근석이 주연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

스포츠서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11

"18년 전 유명 감독이 성폭행" 고소 당사자 "사실무근"...법적대응 예고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감독은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여성을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03년 10월 현지에서 B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10월 말 그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뒤 B감독이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며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A씨는 한동안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다가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이후 올해 봄부터 B감독에게 연락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감독은 1일 "외국 여행 중 A씨를 만났지만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B감독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무고 및 협박죄 등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당시 A씨의 옷과 B감독으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B감독은 "속옷을 선물한 사람도 내가 아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배우 한효주, 5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행동파 경찰특공대, 딱 제 캐릭터죠"

5일 첫방 금토드라마서 주인공 역 나이·성격 등 비슷...내젠 큰 선물 "집은 어디보다 누구와 사는지 중요" 요즘 힘든시대 이 대사 정말 공감

배우 한효주(34)가 또 한 번의 변신을 시작한다.

2016년 MBC 'W' 이후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며 경찰 특공대 에이스로 나선다. 5일 시작하는 tvN 새 금토드라마 '해피니스'는 계층사회 축소판인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생존기를 그린 도시 스틸러다. 인간이 모여 사는 대도시 고층 아파트가 신종 감염병으로 봉쇄되면서 벌어지는 균열과 공포,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와 심리전이 치밀하게 그려진다. 극중 한효주는 배짱 두둑한 경찰 특공대 전술요원 윤새봄 역을 맡았다. 그동안 '인랑' '골든슬럼버' 등 영화와 미국드라마 '트레드스톤' 등을 주연하며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온 그는 원천으로 '캐릭터가 가진 힘'을 꼽았다.

●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냈죠!"

올해 초까지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등 스크린을 주 무대로 활약해왔던 한효주는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발길을 돌리며 '환상조합'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tvN '비밀의 숲'의 연출자 안길호 PD, '굿와이프'를 쓴 한상운 작가를 향한 '열혈 팬심'을 수줍게 드러내 웃음을 자아냈다. 상대역으로는 영리하고 우직한 강력한 형사 정이현 역을 박형식이 맡았고, 조우진은 의무사령부 소속 중령 한태석을 연기한다.

"정말로 안 PD와 한 작가님 팬이라서 제의를 받자마자 '당연히 해야지!'라고 답했어요. 하하하! 제가 맡은 윤새봄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 '행동파'예요. 정의롭지만 '복세편실'('복잡한 세상 편하

게 살자'의 줄임말)의 신조를 지니고 있는, 딱 요즘 사람들 같은 캐릭터죠. 시원스러운 성격을 연기하느라 대리만족을 제대로 했어요."

특히 "나이와 성격이 꽤 비슷한" 캐릭터를 만나 한효주는 "참 선물 같다"고 기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 역할이 생소해서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격 훈련장에서 총을 쏘고, 스텐트 훈련을 따로 받았어요. 무엇보다 제 실제 나이와 성격과도 닮은 캐릭터라 굳이 무언가를 꾸미지 않아도 돼 좋았어요. 그 어떤 작품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내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배우로서는 감사한 일이지요."

● "참 어려운 시대, '누구' 외가 중요해"

드라마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행복'이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행복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여정"이 핵심 줄거리다. 비록 드라마의 감염병은 광견병과 비슷한 '광인병'으로 한층 더 극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면서 한효주는 "드라마의 상당 부분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극중 '집이란 게 어디가 아닌 누구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더라'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박형식, 조우진과 안길호 PD 등 제작진을 향해 "이들과 함께 해서 행복해 마지않았다"고 웃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해피'하게 피땀 눈물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지금 이 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운명에도 같은 드라마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배우 한효주가 1일 열린 tvN 새 금토드라마 '해피니스'의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촬영현장에서 박형식·조우진과 수다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사진제공 | tvN

'사생활 논란' 김선호 광고계서 부활 여론 급변...광고영상·사진 등 재개 영화 '슬픈열대'도 연내 촬영 시작

배우 김선호(35)가 전 여자친구와 얽힌 사생활 논란을 뒤로하고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김선호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지인들의 새로운 주장이 최근 잇따르면서 그를 향한 동정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일찌감치 변화를 감지한 광고·영화계가 재기용하며 그의 활동에 발판을 깔아주고 있다.

1일 영화 '슬픈 열대'의 투자배급사 NEW는 "고심 끝에 김선호와 함께 연내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영화 '2시의 데이트', '도그 데이즈' 등 제작진이 그의 캐스팅을 취소하자 '슬픈 열대' 측도 관련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광고모델로 발탁한 브랜드들도 최근 다시 그를 내세우고 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 재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작진은 김선호의 하자 의사를 받아들여 최근 그를 제외하고 촬영해왔다. 이에 10월29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그의 하자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1일 현재까지 4만2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제작진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정준하-서경덕 교수 막걸리 홍보영상 배포



서경덕 교수(왼쪽)·정준하

방송인 정준하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전 세계에 막걸리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1일 서경덕 교수는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막걸리의 날'을 기념해 4분짜리 막걸리 홍보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종주 소믈리에이기도 한 정준하는 한국어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서 교수는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 빚기'를 국내에 전파하고, 앞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해외에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술 때문에" 신화 김동완 '이수 응원' 사과



김동완

그들 신화의 멤버 김동완이 과거 성매매 혐의를 받은 엠씨더맥스의 이수를 응원했다가 이를 사과했다. 김동완은 최근 SNS에 과거 이수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모습의 영상을 올리고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객석에서 듣는 이수 목소리'라고 썼다. 이에 팬들이 과거 이수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비판하자 SNS 댓글을 차단하고 팬들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동완은 1일 SNS를 통해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많은 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렸다"며 사과했다.

권인하-김장훈, 김현식 31주기 추모 콘서트

가수 권인하와 김장훈이 1일 김현식 추모 콘서트를 열었다. 두 사람은 김현식의 31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8시 서울 역삼동 라이브클럽 아이해브어드림에서 밴드 공연 콘셉트로 '김현식 추억 콘서트'를 펼쳤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고향' '추억 만들기' '사랑 했어요' 등을 팬들과 부르며 그를 추억했다.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 콘서트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비처럼 음악처럼'을 부르는 김현식의 모습을 재현해 시선을 끌었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김선호